

다산포럼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어느 나라에서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착취와 수탈이 존재한다. '착취'는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부리는 것이라 한다면, '수탈'은 시장에서 부등가 교환에 의해 소수 부자가 큰 불로소득을 얻고, 다수 약자가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전대일 열사 50주기도 지나 갔다. 지난 50년간 한국자본주의 수탈의 역사는 어땠는가? 오늘은 수탈만 생각해 보자.

지주에 의한 농민 수탈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늘까지 주곡인 쌀 가격이 다른 공산물 가격이나 교육 서비스 가격 등에 비해 점점 불리해지는 교역 조건으로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탈출하였다. 도시에 와서 임금노동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되었다. 가게 터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매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 건물주는 '지주'이고, 임차 자영업자는 '소작인'이다. '도시의 소작인'이다. 장사가 안되면,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

도시의 소작인

야 한다.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가 임차료를 크게 올려서 쫓겨나게 된다.

다산 선생이 '경제유표'에 토지개혁을 주장하시던 때의 소작 농민에 비해서도 21세기 '도시의 소작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 수탈의 강도가 더 세고 악질적이다. 코로나19로 고객이 없어 매출이 90% 줄어도, 임차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임차료를 내고 나면, 집에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빚만 늘어났다. 흥년에 소작농보다 더 못하지 않은가! 흥년에는 20가마, 흉년에는 10가마 수확을 했다고 치자. 소작료가 50%라면 흥년에도 5가마는 소작인 차지가 되었다.

'도시의 소작인'은 불경기 흉년에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빚만 늘어나니, 수탈률이 50%가 아니라 10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임차 자영업자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무주택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는 집에도 월세나 전세를 내야 한다. 초가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있었던 소작농에 비하면 훨씬 더 불리하다.

'도시의 지주'들이 건물주나 다주택자는 사정이 어떤가? 그들에게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건물 값이 오르면 임대료 연간 수입의 수십 배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생긴다.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수록, 건물 값 상승률은 높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평당 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서울과 다른 도시의 땅값 차이도 크다. 지역에 따라 수탈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기회는 불평등하며, 과정은 불공정하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 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은 전교 1등을 해서 의사나 검사가 되기보다 어렵다. '도시의 소작인'을 비롯한 대다수에게는 '헬조선'이다. 건물주나 다주택자에게는 천국이다. 놀아도 재산 가치가 수십억, 수백억씩 불어난다. 지식들에게 증여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

'도시의 지주'가 차지하는 자본이득은 문젠이 정부 들어 매년 1천조 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예산보다 많고, 2천만 노동자의 총임금소득보다도 많다. 특히 강남 지주들은 관료와 언론을 부리고, 1당과 2당 두루 국회의원들도 부릴 만큼 힘이 막강해졌다.

어떻게 하면 '도시의 소작인'들이 덜 수탈당하도록 할 것인가? 이미 30년 전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제시되었다. 70년 전 농지개혁처럼, 부동산을 통한 수탈을 대폭 줄이고, 수백만 '도시의 소작인', 수천만 무주택자와 가족들을 수탈의 늪에서 구해 내기 위해서는 도시 토지개혁이 필요함을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계, 관계, 언론계, 학계에 '다산정신'으로 무장된 '부동산 정의' 실천가들이 나오고, 그들이 '도시의 소작인'들과 함께 물쳐야 한다.

청춘특독



임혁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년

최근 들어 날씨가 쌀쌀해져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집 안으로 집어넣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학교까지 걸어 다니게 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동 키보드였다. 날개 혹은 한 쌍의 전동 키보드가 눈 닿는 구석구석마다 놓여 있었다. 어느 날은 인도 위에 십여 대의 전동 키보드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이 인도 밖으로 통행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였다.

누군가의 민원 탓인지, 아니면 회사 측의 뒤늦은 자성이 있었는지 다음날이 되니 인도 위에 줄지어 있던 전동 키보드는 자취를 감추었다.

전동 키보드가 늘어서 있던 곳은 평소 애 가족 단위로 산책이나 나들이를 자주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괜히 아이들이 타 보려하거나 뛰어다니다 부딪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걱정이 시작되니 다른

보고 듣고 걸어다닐 때는 알지 못한 것

걱정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랐다. 결국에는 평소 그 길을 걷던 장애인에게는 전동 키보드가 갑자기 생긴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도달했다.

앞서 내가 보았던 인도 위 전동 키보드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내리막길 앞이나 장애인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전동 키보드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우연히 목격자가 장애인 주차장이나 내리막길 앞이거나, 점자 보도블록 위였을 뿐이고 정차 후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왔을 것이다. 물론 전동 키보드를 아무 장소에나 주차한 이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불편함을 느껴야만 그제서야 타인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모습은 무분별하게 전동 키보드를 주차한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불편을 넘어선 위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요즘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항균 필름이 덮인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항균 필름이 붙어 있는 층수 버튼에는 점자도 함께 적혀있다. 즉, 항균 필름이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QR코드 인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대면 소통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다.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은 주로 수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손동작과 함께 입 모양,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다. 그 결과 일상 속 불편함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권 침해, 병원에서는 건강권의 침해까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마스크는 나쁜 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즈 1을 마무리한 유튜브 '네고왕'의 출연자 한광희 씨가 착용한 투명 마스크와 같은 대체품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 투명 마스크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통해 소량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교육 현장이나 의료 현장과 같은 곳에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투명 마스크가 지급되길 바란다.

우리가 전동 키보드를 주차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항균 필름을 붙이는 순간에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시 평생교육팀 신설을 환영한다

교육국 아래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과 안에 교육정책팀, 평생교육 사업팀, 평생교육 지원팀 등 3개 팀을 운영 중이다. 평생교육과에 모두 14명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아래 교육협력과, 청소년과, 도시관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정책팀, 교육정책 개발팀, 평생교육 지원팀, 평생교육 사업팀 등이 있고 네 개 팀 정원은 29명이다. 수도권은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를 보자. 광주와 달리 동맹을 한 대구시는 시민행복 교육국의 교육협력 정책과 산하에 평생교육팀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팀 정원은 3명이다. 대전시의 경우는 공동체 지원국의 교육정책과에 교육 복지팀을 두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원은 세 명이다. 순천시도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 기획팀 다섯 명, 평생교육 운영팀 여섯 명, 교육지원팀 네 명, 시설관리팀 네 명, 여성문화화관팀 다섯 명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에는 어떤 상황일까. 그동안 광주시는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교육지원계 소속의 주무관 한 명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책 연구가 아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주업무였다. 평생교육팀도 없었고 평생교육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제 광주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선 안 된다.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팀을 꾸려 실질적인 광주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잠재력이 크고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도시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 지능 등 새로움을 모델로 내세우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평생교육은 과거 부실한 운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3-4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 잃어버린 3년을 되찾아야 한다. 이번엔 신설된 평생교육팀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를 집중하여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한 도시 광주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지역 평생교육 생태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시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국으로 확대되는 코스를 밟아 나가야 한다.

평생 학습의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 행복한 미래도 말할 수 없다. 이제 배움은 청년 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다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필수품이 되었다. 그걸 잊지 않고 평생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평생교육 전담팀 신설 소식은 참으로 기쁘다. 평생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응 수단이다.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팀이 할 일이 많다.

社說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듬는 대책 없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 지역 5대 상권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새 이들 상권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만 178개에 달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를 최근 KB 상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총장로·상무지구·수완지구·중흥동·광천동 등 광주 지역 다섯 곳의 일부 상권을 대상으로 상가의 평균 월 매출과 업종별 점포 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점포 3465곳의 총매출액은 지난 9월 기준 94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8%(330억 원) 감소했다.

상권별 감소율은 상무지구가 35.9%로 가장 컸고, 가장 많은 점포가 위치한 총장로우체국 주변도 32.7%에 달했다. 이어 중흥동 전남대 후문 26.7%, 광천동 17.2%, 수완지구 7.5% 순이었다. 아울러 광주에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동안 이들 상권 6개

업종의 점포 수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73개, 소매업 45개, 생활서비스업 22개 등 모두 178개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문을 연 업소는 36개에 그쳤다.

이처럼 상가 매출이 급감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는 것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환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당수 상인들이 인건비는커녕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벼랑을 건너려면 결국 정부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에는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이 반영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지급 기준도 현실화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의 박탈감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1호 '도심 속 습지' 잘 보전해야

광주 광산구 황룡강변 장록습지가 우리나라 1호 도심 습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어제 환경부가 광주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보호지역 지정 환영 성명을 냈다.

황룡강 하류부에 있는 장록습지(2.7km)는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고 습지 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 습지로 꼽힌다. 그동안 장록습지는 도심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도심 내 하천이라는 점을 들어 홍수예방 사업 등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바람에 국가하천 습지 지정이 늦어졌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장록습지에는 지난 2018년 3월~12월 국립습지센터가 생태 조사한 결과 모두 82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삼·새호리개·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생물 4종도 발견됐다. 이번에 장록습지가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습지 보전과 복원사업에는 국비 70%, 탐방로·학술관 조성 등에는 국비 50%가 지원된다.

콘크리트 아파트단지와 각종 공해 등으로 도심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록습지가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구역으로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습지 지정 구역뿐만 아니라 이용성 광주시장이 언급한 대로 지정되지 않은 제척지역에서도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와 함께 평생 수집한 문화재를 나라에 기증한 손창근(91) 씨가 오늘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손 씨가 아버지(석포 손세기)와 함께 모아 온 국보·보물급을 포함한 문화재 304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훈장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고가의 문화재를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기증한 그의 결단은 금전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대에 비춰봐서도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세한도

손 씨가 기증한 문화재 가운데 단연 주목 받는 작품은 추사의 세한도다. 국보(제180호)로 지정됐으며 당대 제일의 문장가이자 명필이 그린,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그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한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한다. 창문 하나만 있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나무 네 그루만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세한도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사연을 풀고 있어 더 유명하다. 제주로 유배되면서 세상과 단절된 추사의 현실이 겹치

면서 다시 읽히는 것이다. 좋은 집안에 실력까지 갖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그에게 제주 유배는 실 전후의 혹독한 추위를 이르는 세한(歲寒)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삶의 시련을 떠올리게 하면서 깊은 공감과 울림을 낳는다.

세한도는 세상 권세에 기웃거리기보다는 한결같았던 그의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림이기도 하다. 서문에 적은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라는 글귀가 이를 말해 준다.

겨울이 되어야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듯이, 사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의미다. 그림에는 또 장무상망(長毋相忘)이라는 인장도 찍혀 있는데,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다. 세한도는 삶의 한파를 그려 내면서 마음의 온기를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상은 더 단절되고,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그럴수록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 서로 사회의 온기를 지켜 나갈 일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고



서동근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 이사장  
교육학 박사

드디어 광주광역시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된다. '평생 학습 도시' 광주광역시에는 그동안 평생교육 전담 부서는커녕 평생교육사 한 명이 없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날 광주시의회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의제를 발의했고 이어 평생교육팀 신설을 이뤄 냈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를 확장시켰다. 역할 확대와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자고 나면 기후 변화부터 시작하여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경험 있는 지식인들을 통한 평생 학습으로 뭔가를 보완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힘들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공감을 늘린다. 또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당연한 처사다.

수도권의 경우 '평생교육국'을 두고 국 차원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해 구현하고 있다. 서울시는 평생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